



# No! 심야노동 Yes! 정규직화

## 금속노조 파업 정당하다

금속노조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역사적인 '산별 총파업'에 나섰다. 특히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3사 노동자들이 '무쟁의'라는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폈다!

이 때문에 재계와 보수언론은 “불법행동 엄단” 운운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다. 경총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된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의 신인도 하락, 투자 위축 등 어려움을 배가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 업체들은 사상 최대 수익을 누리 왔다. 이미 부품사 사장들이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기 시작한 데서 보듯, 저들은 충분히 지불 여력이 있다.

자본가들이 쟁기고 있는 막대한 부는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의 대가,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의 설움과 눈물의 대가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를 내세울 자격이 충분하다.

저들은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이 문제'라지만, 주간2교대제 시행, 불법파견 정규직화 같은 요구는 금속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더구나 “그 어떤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어떻게 정치적이 되지 않을 수 있나?”(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

이것은 이명박·박근혜·새누리당·민주당 등이 하고 있는 야비하고 위선적인 '정치'와 달리, 완전히 정당하고 정의로운 '정치'다.

조중동은 '왜 금속노조 파업에 현대차·기아차가 총대를 메느냐'고도 비난하지만, 현대·기아차가 금속노조의 핵심인 상황에서, 이것은 산별노조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

더구나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총대를 메”고 부품사·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나선 것은, 민주노총의 '말형'다운 자랑스럽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재계와 우파의 비난은 노동자들이 공장 담벼락을 벗어나 단결하고 스스로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준다. 이것은



우리 투쟁의 중요성을 역으로 증명한다.

저들은 한국 수출의 견인차인 자동차 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것을 진저리치게 싫어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진 막강한 파워를 보여 줄 뿐이다.

### '정치파업'

심야노동이 우리의 심신을 쪼먹고 인간다운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왔던 것을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기아차의 주간2교대제 시범실시가 우리 모두를 얼마나 설레게 했는가. 자동차 호황 상황에서 우리가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대법원조차 인정한 불법파견 정규직화도 마찬가지다. 왜 똑같은 노동자가 누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가.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법'이란 '악마의 법'으로 정몽구 살리기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의 투쟁은 차별에 짓눌려 온 비정규직 형제·자매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을 확대·강화하며 사측과 정부를 더 몰아붙여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지배자들의 위기와 분열이 심화하는 지금은 투쟁의 기회다.

“영일대군” 이상득이 달걀 세례를 받으며 구속됐고,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체결하려던 한일 군사협정이 무산됐다.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99퍼센트의 고통 속에 재벌에 대한 반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화물연대 파업이 투쟁의 돌파구를 열었고, 지금 금속노조가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한국GM, 금호타이어, 만도 등에선 이미 며칠 전부터 2~3시간 파업을 시작했다.

투쟁이 승리하려면, 이런 기운을 살려 싸워야 한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현대·기아차의 공동 투쟁, 전체 금속 노동자들의 연대 기초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간질과 각개격파 시도에 맞서는

▶ 뒷면으로 계속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자!

2010년 영웅적인 점거파업으로 정몽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는 한편, 최근 2년 미만 비정규직 1천5백 64명을 대규모 계약 해지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 사측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혼재된 생산라인에 비정규직 대신 단기 직영 계약직을 투입해 불법파견의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도 이에 힘을 실고 있다. 새누리당의 법안을 적용하면 불법파견이 '합법'으로 둔갑하고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은 "어떤 방식이든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법안은 정규직의 유연화도 겨냥하고 있다.

사측은 '불법파견 정규직화가 정규직의 노동조건·고용을 위협한다'고 이간질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들은 비정규직을 공격해 정규직의 고용도 유연화하려 한다. 실제로 시그네틱스에선 정규직을 도급업체로 전환하려는 공격이 시작되기까지 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전체 비정규직 투쟁의 초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게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 투쟁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쟁의를 결의했고, 현장 순회와 조합원 가입 설명회를 조직하고 있다.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범적이게도 아산공장의 활동가들은 원·하청 공동 선전전과 현장 순회를 조직하며 직영 계약직 투입 시도에 맞서고 있다.

## 정규직의 연대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는 이뿐이 아니다. 이미 울산 1공장 대의원회는 직영 계약직 투입에 맞서 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바 있다. 울산 정규직 활동가들이 '(가칭)원하청공동투쟁실천단'을 제안하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투쟁 결의 지지"를 선언한 것도 고무적이다. 다시 희망을 찾은 비정규직들의 조합 가입도 늘고 있다.

이런 투쟁에 정규직지부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적극 연대해야 한다.

사측은 다음주에 또다시 직영 계약직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투사들이 함께 투쟁을 호소하고 직영 계약직 투

입을 막아야 한다. 현장의 정규직 활동가들이 자신감 있게 직영 투입 저지 투쟁을 벌일 수 있도록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직접 나서 선두에서 싸워야 하고, 징계 등의 위협에 적극 맞서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전진은 차별과 멸시로 고통받는 전체 비정규직의 희망일 것이다. 대규모 집단 계약해지, 공정분리, 전환배치 맞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해 정규직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자.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2주년을 맞아 열리는 '울산공장 포위의 날' 집회는 이 투쟁의 확대를 위한 중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불법파견 정규직화 야간노동 철폐 원·하청 연대 한마당

일시: 7월 21일(토) 오후 4시~9시  
장소: 울산 명촌공원에서 집결해  
현대차 울산 공장으로 '걷기대회'

## 100만인이 지지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일시: 7월 21일(토) 오후 9시~7월 22일(일) 오전  
장소: 현대차 울산 공장 앞

### ▶ 앞면에서 이어짐 것이 중요하다.

저들은 주간2교대 투쟁의 중심축인 현대·기아차의 분열을 획책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 지부가 하루빨리 20일 파업 돌입을 못박을 필요가 있다. 금속노조 전체는 물론, 기아차·한국GM지부도 확정한 마당에 현대차지부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투쟁이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우리측이 먼저 굽히고 들어갈 이유도 없다. '심야노동 없애는 대신 노동강도를 왕창 높이자'는 저들의 조삼모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사측조차 "1994년부

터 2004년 사이 1인당 생산성을 무려 10배"나 높였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밤에는 자고 싶을 뿐 아니라 골병 들며 일하고 싶지도 않다.

양보는 노동자 고혈로 엄청난 이윤을 챙긴 사측이 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노동강도 강화 없는 8+8 도입과 총액 임금 보장'에서 물러서지 말자.

"생산량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정은 공문구가 대선 안 된다. 사측의 생산량 보존 압력을 일단 받아들이면 노동시간 단축도 일관되게 주장하기 어렵다.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라는 월급제의 명분도 흔

들리게 된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오로지 '생산량'과 정몽구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현대차 사측은 주간2교대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불법파견을 '합법 도급화' 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

따라서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고 인간답게 살겠다는 정규직·비정규직, 완성차·부품사 노동자들이 끝까지 똘똘 뭉쳐 싸워야 한다.

이번 투쟁이 7월 20일에 이어 8월 파업으로 확대돼 성과를 낸다면, 이명박 5년 동안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레프트21** 85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요 기사

격화하는 경제 위기와 변혁적 대안  
동아시아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군사협정  
아랍 혁명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자 투쟁 금속, MBC, 쌍용, 전교조 ...  
최병성 목사 기고 재앙으로 돌아 오는 4대강 사업